

## 포스트 클래식, 컨템포러리 시대의 호모 루덴스

### Homo Rudens in the Post-classical or Contemporary Era

홍애령(Hong, AeRyung)\*

Nachmanovitch, S.(2024).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권혜림 역). 불광출판사. (원저 출판 1990).

이 책은 '상상을 현실로 이뤄주는 타고난 창조적 힘에 관하여'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창의적인 인간을 전세계에서 미래 인재상으로 설정한지 꽤나 지났음에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필자 같은 사람에게는 참 매력적인 부제이다. 저자인 스티븐 나흐마노비치(Stephen Nachmanovitch)는 즉흥에 능한 바이올린 연주자로 1970년대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전자 바이올린을 활용한 즉흥 연주를 하다가 최근에는 미디어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저자는 예술과 창조성에 대한 철학적이고도 실용적인 성찰을 담아 책을 썼다. 그는 즉흥 연주와 놀이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적인 자유를 탐구하고, 창조적 과정이 단순히 예술가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된 가능성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지금의 시대, 즉 포스트 클래식(post-classical)과 컨템포러리(contemporary) 관점이 혼재된 환경에서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과 관련하여 이 책이 주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포스트 클래식과 컨템포러리는 예술 분야에서 각각 특정 시기나 예술적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두 용어는 주로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며, 각기 다른 의미와 특징을 지닌다. 먼저 포스트 클래식은 클래식(고전주의) 이후의 예술적 흐름을 의미한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까지의 고전주의 음악이나 예술 양식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예술 경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음악에서는 베토벤, 쇼팽, 리스트 등의 작곡가들이 클래식 음악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고, 미술과 문학에서도 고전적 규범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컨템포러리는 현재(동시대의) 혹은 현대의 예술을 뜻한다. 이 용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작품이나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발생한 예술적 흐름을 가리킨다. 무용 분야에서는 이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발레에서는 포스트 클래식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클래식 발레 이후의 변화를 이끄는 안무가들이 등장했고, 이에 현대무용과의 경계가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조교수, dphong@knue.ac.kr

모호해지며 각 안무가의 자유로운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 더 널리 사용되어 온 컨템포러리 댄스는 춤이라는 공통점만 있을뿐 매우 다양한 형식과 스타일을 포괄하고,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예술가의 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처럼 예술 분야와 무용 내에서도 각 예술가들이 지향하는 철학과 목표에 따라 창의성이 표출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저자는 창의성에 목말라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겼을까?

## I. 창의적 삶의 필수 도구, 즉흥성

저자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예술은 즉흥 연주”(Nachmanovitch, 2024, p. 20)라며 창조의 본질이 즉흥성에 있음을 강조한다. 작곡가가 악보에 곡을 쓰기 전에 즉흥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듯 모든 창조는 즉흥적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즉흥성은 무질서하거나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 기법과 이론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빛을 발한다. 즉흥성은 예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의 탐구,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은 즉흥적으로 상황에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이는 창조적 행위의 보편성을 보여주며, 모든 사람이 예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흥성은 예술과 놀이의 경계를 허물며, 인간 존재의 본질적 자유를 강조한다. 저자는 예술적 즉흥성을 통해 인류가 시대적 제약을 초월하고 자신만의 창조적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즉흥성은 현대 사회에 인간의 창의적 삶을 위한 필수 도구라고 강조한다.

## II. 영감과 지속성의 균형

저자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영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영감의 순간을 지속적인 활동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Nachmanovitch, 2024, p. 103)을 강조하며, 영감이 휘발되지 않도록 연습과 반복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영감은 종종 짧고 강렬하며, 이때 생성된 에너지는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진다. 그는 영감이 단순한 번뜩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변환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예술가는 반복적인 연습과 실험을 통해 영감을 현실로 구체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깊고 풍부한 창조물을 낳는다. 영감과 지속성의 균형은 창조적 행위에서 필수적이다. 그는 영감의 순간에 의존하는 대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창조적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감이 지속성을 통해 삶의 다양한 요소와 통합될 때, 창조적 과정은 더욱 풍부해진다. 이를 통해 그는 창조적 과정에서 영감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영감과 지속성은 서로를 보완하며, 이를 통해 창조적 과정이 진정한 예술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 III. 놀이 의식과 창조적 자유

저자는 예술적 창조성이 “내면의 어린아이의 맑고 순수한 놀이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Nachmanovitch, 2024, p. 72). 놀이 의식은 창의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통해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몰입은 종종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로 이끌고 인간이 본연의 창조적 본성을

발휘하게 한다. 그는 놀이 의식이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예술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 업무,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 가능하다. 놀이 의식을 통해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이는 창조성의 원동력이 된다. 이 때문에 놀이 의식은 책임과 규칙에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놀이 의식은 특히 포스트 클래식, 컨템포러리 시대의 예술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현대무용가가 짜여진 안무에서 벗어나 순간의 영감으로 몸을 움직이는 즉흥 연습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이 그러하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자신과 자신이 느끼는 여러가지 감각의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디지털 예술에서도 놀이 의식이 창작 과정에 나타날 수 있다.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s)나 게임 디자인과 같은 분야에서 창작자는 유저(user)의 참여를 예상하며 규칙을 설계하지만, 동시에 유연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포용한다. 이는 놀이 의식이 자유와 질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놀이의 본질은 하위징아의 ‘호모 루덴스’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놀이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인간 본질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는 초월적 차원까지 탐구한다. 저자는 이러한 질서와 자유의 조화를 통해 창조적 잠재력이 발현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놀이 의식이 예술뿐만 아니라 현대적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놀이 의식은 포스트 클래식, 컨템포러리 시대에 창조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 IV. 완벽주의의 덫

저자는 완벽주의와 미루기가 창조성을 억압하는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완벽주의가 “판단의 유령과 대면하게 한다”며, 창조적 과정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Nachmanovitch, 2024, p. 185).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이는 사람들을 시도 자체를 회피하게 만든다. 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복된 죄”(Felix Culpa)의 개념을 제시하며, 실수가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Nachmanovitch, 2024, p. 127). 실수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창조적 가능성을 열어 준다. 저자는 창조적 과정에서 완벽주의를 버리고, 실수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장한다. 그는 완벽주의가 현대 사회의 지나친 성과주의와 결합해 사람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억압하고 있다고 본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창조적 과정에서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 인간의 성장과 학습의 중요한 동력이다. 또한 실수의 힘을 믿고 이를 통해 창조적 자유를 획득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유한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창조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

#### V. 자신을 비우면 보이는 것들

저자는 진정한 창조성을 위해서는 “자신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Nachmanovitch, 2024, p. 196). 이는 자신을 내려놓고,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통해 영감과 창조성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

는 종종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된다. 그는 이를 통해 창조적 과정이 개인적 욕망이나 의지의 발현을 넘어서는 경험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또한 자신을 비우는 것이 단순히 창조적 영감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창조적 행위가 인간 관계와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무위(無爲)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이 태도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때 진정한 창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을 비움으로써 더 큰 영감과 조화를 경험할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태도는 창조성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더욱 풍부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VI. 규칙과 자유의 조화

저자는 창조 과정에서 “규칙은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최소한의 외적 구조가 내적 창조성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Nachmanovitch, 2024, p. 115). 이는 과도한 규칙과 제한이 창조적 과정을 억누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단순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이 창조성을 촉진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규칙이 너무 많을 경우 창의적 자유가 억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대로 규칙이 너무 적으면 혼란과 방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규칙과 자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균형은 예술 창작뿐만 아니라 교육, 조직 관리, 심지어는 개인 생활에서도 유용하다.

컨템포러리 시대의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에서 이 균형이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다양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는 새로운 규칙을 창조 과정에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자유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디지털 기술은 창작 도구와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기술적 규범과 알고리즘에 얽매일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창작자는 새로운 기술과 규칙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창조적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는 창작자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기술과 규칙을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외적 규칙이 내적 창조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규칙과 자유의 조화가 현대 창작 환경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창작자가 적절한 균형을 찾을 때, 단순히 작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규칙과 자유는 단순히 상반되는 요소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창조적 과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임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저자가 주장하는 몇 가지 개념들은 삶 속에서 놀이를 통해 풍부하고 가치로운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예술가, 창작자이지만 한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갈급함으로 때로는 규칙과 완벽에 사로잡혀 영감과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은 후 저자의 메시지가 강하게 마음을 움직인다면, 삶 속에서의 놀이나 즉흥, 자신을 비우는 태도들을 통해 나의 삶을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영위하며 본업인 예술가, 창작자로서의 활동 또한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